

금요 수필

하루를 삼켜버린 휴대폰, 그리고 10분의 기적

아침은 늘 그렇듯 평범하게 시작됐다. 눈을 뜨자마자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방사이 온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 화면을 켜는 순간, 낯선 팝업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1만 5천여 개의 사진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지금 복구하세요." 며칠 전 휴대폰에 파일이 가득 차서 이를 지웠던 터라 별다른 의심도 없이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단 한 번 눌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하루 전체를 삼켜버린 줄은 몰랐다. 곧바로 화면에는 광고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창을 닫으면 또 다른 광고가 튀어나왔고, 다시 닫으면 또 다른 창이 나타났다. 전화를 걸려고 하면 광고가 나와 전화를 걸 수도 없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갑자기 막혀버린 느낌이었다. 몇 시간을 붙들고 이것저것 눌러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전 내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점심 무렵 신문사도 와서 근처 휴대폰 가게로 달려갔다. 사장님은 성심껏 휴대폰을 살펴보며 여러 설정을 확인했다. 잠시 관찰이되는 듯했지만 광고는 다시 나타났다. 회사로 돌아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댔다. 모두가 도와주려 했고, 저마다 경험담을 꺼내며 이 버튼 저 버튼을 눌러보았다. 그러나 휴대폰은 썩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업무 업무를 마친 뒤 회사 대표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서



이 만 호
수필가

비스센터로 향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한 여직원원이 테블릿을 내밀었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세 군데나 해야 했다.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그녀는 내 휴대폰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직원의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직원은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특정 앱 하나를 찾아 삭제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관찰이될 거예요." 믿기지 않았다. 각종 어플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카카오톡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혀던 문제가 전문가의 손끝에서는 단 10여 분 만에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다. 그 순간 마음 한편이 허탈해졌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 도와주었는데, 결국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던 단 한 사람이었다. 돌이켜보면 세상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잘 모르는 여러 사람이 각자 방식대로 건드리면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꼬이게 된다. 반면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핵심을 곧바로 짚어낸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는 척'이 아니라 '정확히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절실히 배웠다. 나는 문득 내 삶을 돌아보았다. 오랫동안 교정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의 고민과 문제를 접해왔다. 그 과정에서 쌓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내 분야에서는 막연한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일을 통해 또 하나 짚어 느낀 것이 있다. 우리는 이제 휴대폰 없이 사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지인과의 연락, 금융 업무, 정보 검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손바닥 안의 작은 기기에서 이루어진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우리네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디지털 뱅'이라는 말까지 듣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편리함이 커질수록 위험도 함께 커진다. 무심코 누른 팝업 하나가 하루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몸소 경험했다. 낯선 광고를 함부로 클릭하지 않는 것,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이제는 현대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휴대폰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나의 시간과 관계, 일상을 모두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만큼이나 경제심과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답답함 속에서 헤매던 기억은 아마 오래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한 경험 덕분에 나는 두 가지를 얻었다. 하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경제심이고, 다른 하나는 '정확히 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다. 오늘도 휴대폰 화면에는 수많은 알림과 광고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전처럼 쉽게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다. 잠시 멈추고 한 번 더 살펴본다. 그 짧은 멈춤이 때로는 하루를 지키고,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가짜 가상자산 사기 일당 경찰에 덤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정적으로 이자를 준다고 속였는데, 피해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다. 가상자산 '리플' 관련 신규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유튜브가 문제였다. 리플을 예치하면 매달 고정적인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5천만 원의 리플을 FXP로 변환할 경우 매월 75만 원에서 90만 원어치의 리플을 보상받게 된다고 한다. FXP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매월 1.5%에서 1.8%의 리플이 자를 지급하고 있다고도 한다. 모두 가짜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2~30대 남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블록체인 기업 이름을 도용해 유사한 이름

의 투자 사기 사이트를 만든 뒤, 예치하면 매달 최대 1.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나 블로그, 언론 기사를 이용해 대대적으로 광고했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피해자 71명에게 가로챈 리플은 약 340만 개, 우리 돈으로 123억 원 규모다. 검거된 사기 피해자 3명 가운데 20대 남성 2명은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주요 공범인 또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인터뷰 적색 수배를 진행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행이 의심되는 173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긴급 동결 조치했다.

제22회 전북수채화협회전 성료

제22회 전북수채화협회전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1층에서 열렸다. 전시회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교묘하고 평온한 휴식을 제안한다. 나무들 사이 저 멀리 뒤편 잔디밭 부근에도 작게 표현된 인물이 있어 공간의 원근감을 더해준다. 맑게 흐르는 계곡물과 바위, 수풀의 싱그러움은 따뜻한 터치로 담아내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일상의 여유를 전한다. 중절모(페도라)와 안경을 착용하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으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그렸다. 가족을 향한 따뜻한 성품이 그대로 묻어난다. 고지영·김수정·박경희·서혜영·오정애·이미정·이영수·장

현옥·채인숙·최향숙·김명순·김순복·박선호·소재남·유대영·이미행·이영주·정목희·최명덕·한상정·김미란·김연자·박정연·손미령·유정화·이성봉·이유경·정병운·최복·한인순·김분민·김영주·박정자·손용이·윤희순·이승연·이지연·정상현·최성숙·홍경숙·김신임·김하영·박현주·송경숙·이동욱·이승희·이진숙·조성옥·최영미·황현미·김성준·김희순·서삼영·안은순·이로미·이영달·이현순·조숙·최인수 등 수채화 작가 59명이 참여했다. 최인수 회장은 "수채화가 가진 맑고 담백한 정서가 무더운 여름철 도민들의 지친 일상에 시원한 청량제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독자제언

기록적인 폭염, 방심이 생명을 위협한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사망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 해야 할 시점이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 저하,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응급질환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작업하거나 활동해야 한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활용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량 안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혼자 두

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직접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만약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식혀야 한다. 얼음주머니나 젖은 수건으로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는 부위를 냉각시키고, 의식이 명확한 경우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그러나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에서는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기후변화로 폭염은 해마다 더 강하고 길어지고 있다. '관찰했지'라는 단일한 생각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폭염 행동요령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주변의 취약 계층을 한 번 더 살펴는 배려가 올바른 여름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